

요양보호사 인력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초고령화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제도다. 노인의 11.2%인 약 110만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핵심인력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도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심각한 ‘돌봄 공백(care deficit)’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의 상태에 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2028년에는 무려 11만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인 장애물에 기인한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령

임금은 109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87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약 353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의 숙련과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도 인력 이탈의 원인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시간제)이 무려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소속기관 평균 근무 기간은 불과 3.3년으로 장기 근속장려금 수령 비율도 18%에 그친다. 젊은 인력의 기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무려 61세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국내 중장년 인력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몇 만원 수준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일본 수준의 처우 개선 교부금 도입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인력 유인책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해외 돌봄 인력’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도 한국의 낮은 급여로 꺼리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이유다. 더욱이 외국 인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교육 훈련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도 크다.

이처럼 국내외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구조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장기요양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을 개혁해서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9.1%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이 미준수 기관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변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노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술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기지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비 오는 날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손님은 넘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다. 앱 호출은 계속 ‘배차 실패’를 띄운다. 이러한 풍경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급 인력을 둘러싼 경쟁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인재 역량 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이들이 일할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다.

중국은 고액 연봉과 연구 인프라를 내세워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

로 과학자들을 ‘국보급’으로 대우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연구자들을 되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을 위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해외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해 비자 문호를 개방하며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연구자 한 명이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안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규제 중심적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 어려워져 실적 기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연구개발직을 초과근무 규제에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일부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일정 범위의 초과근무와 수당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고도화된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등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 역폭메모리(HBM)과 차세대 낸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 호황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불안도 공존한다. 산업이 성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기계만 남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인재를 잡지 못하면 반도체 경쟁력은 뒤쳐질 수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마련해야 메모리 업황 호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꿈을 얻을 수 없다. 48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돕는다. 6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모른다. 72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84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것이다.



37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49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른다. 61년생 다정했던 동료와 불화를 조성하자. 73년생 병법상의 최상책이 삼십육계라는데. 85년생 양손의 떡 중 하나는 양보해야.



3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50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62년생 이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74년생 세 사람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승수로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86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39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51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도전. 63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75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공상망다. 8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



40년생 행한 착선이 복으로 돌아오다. 52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올 자가 없으나 더 노력. 64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76년생 부모님이 그러워도 될 수가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88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1년생 믿거나 말거나로 남의 뒷얘기 하지 않도록. 53년생 부조화는 불안정을 부른다. 65년생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77년생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만 간다. 89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으니.



42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흠도 드러난다. 54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66년생 명상으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78년생 뒷물이 흐리면 앞물도 흐려진다. 90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독신보다는 가정을 이루도록 해보자.



43년생 바람이 불어도 투자는 하는 일은 생각 말자. 55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 67년생 남쪽으로 길을 떠나보면 생각도 변한다. 79년생 어려운 일이 임시뵈면 통으로 우선은 해결. 91년생 자신에게 실력지원을 아끼지 마라.



44년생 이사할 마음은 시간을 가져보자. 56년생 이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68년생 오늘 걸으면 내일 뛺지 않는다. 80년생 모아 둔 돈은 없으나 산 입에 거미줄 치라. 92년생 내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현실적일까.



45년생 가물에 단비가 내린다. 57년생 지나간 연인이 찾아오니 갈등 시작.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1년생 달걀을 쌓은 것처럼 시기가 위태로우니 투자는 금물. 93년생 세상에는 수 없는 사연이 많으니 근심하지 말자.



46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58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자. 70년생 혁신적인 생각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82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94년생 사촌의 자식 고뇌를 보며 무자식 상팔자를 실감할 수도.



47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빠내도록. 59년생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갖도록. 71년생 급여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83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린다. 95년생 일궈놓은 만큼 성과도 좋을 것이니 기다리자.



김상회의四季

복을 불러오는 상달 고사

상달, 즉 음력 10월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기이다. 이때 올리는 고사는 조상과 신령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달 고사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향한 경의심이 담긴 의례이다. 늦가을 하늘이 가장 맑고 청명한 시기에 올리는 고사는 한 해의 풍년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인 집안과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있다. 농경 사회에서 곡식 수확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수확의 풍요로움은 곧 신의 은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달에 조상에게 제물을 올리고 신령에게 고하며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평안을 부탁했다.

이는 가정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의 성격이며 이를 통해 복이 들어오고 액운이 물러난다고 믿었다. 한 해 동안 쌓였던 불운이나 불길한 기운을 털어내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의 길운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특히 상달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달이라 하여 이때 올린 기원은 평소보다 더욱 신령에게 잘 닿는다고 여겨졌다. 집안의 재물이 늘어나고 자손들이 평안할 것이라는 마음이 상달 고사에 가득 담겨있는 것이다. 상달고사는 대청이나 마당에 제상을 차리고 조상과 집을 지켜주는 신에게 술과 제물을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생선 떡 과일 곡식 등을 준비했고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간소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마을 단위에서는 당산나무 아래나 공동 제단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상달 고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불렀다. 요즘은 상달 고사는 과거만큼 널리 지내지 않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과 가정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4	9			5	
	5	9	8					
	4			6	2		8	7
		1				2		8
7								4
2		3			4			
4	8		2	1			9	
					6	8	2	
	2			3	8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1	8	8	1	7	2	9
9	2	8	9	7	1	1	6	8
8	6	9	1	1	2	9	8	7
1	1	7	6	8	9	8	9	7
7	8	9	9	2	6	8	1	1
8	7	2	8	9	9	1	1	6
1	8	6	2	9	8	7	1	1
2	1	8	7	1	8	6	9	9
9	9	1	1	6	7	2	8	8